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Sacheon

항공산업 동향

2019년 8월

해외 동향

□ 중국 자체 개발 중형 여객기 C919 시험비행 성공

- 중국, 보잉과 에어버스의 양강 독점 체제를 흔들 단일통로형 중형여객기 개발
-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 '중국상용항공기(Comac·코맥)의 C919여객기, 2020년 운항 인가 획득, 2021년 고객사(중국동방항공) 첫 인도 목표
- 현재 900여대 선주문 상태

중국자체개발 여객기(C919)

- 최고속도 : 963km/h
- 항속거리 : 최대 5천555km
- 탑승인원 : 158~168명
- 경쟁기종 : B737MAX, 에어버스A320네오
- 엔진제조 : CFM인터네셔널(프랑스, 미국 합작)

□ 에어버스, 보잉737맥스 결함 반사이익

- 에어버스 2분기 매출, 작년 동 분기 대기 23% 늘어난 24조1천억 원으로 집계 (순수익은 1조5천억 상당으로 작년 동 분기 5배 가까이 증가)
- A320네오 등 신모델 시리즈 기종 판매 호조로 상반기 인도물량 389대 중 294대가 A320시리즈 (19.8.1. 아시아나항공 A321NEO 국내 첫 도입)
-보잉, 737맥스 추락사고 이후, 1916년 창사 이래 최악의 손실 기록 (2019년 2분기 손실액 약3조4천억 원, 매출액은 17조3천억 원)

국내 동향

□ 국토부, ‘드론택시’ 상용화 대비 전담 부서 출범

-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**미래드론교통과**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업무 착수 (202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/ 4급 과장 1명, 5급 2명, 6급 1명 등 정원 4명)
- 드론택시 현실화를 위한 드론 교통체계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교통운송수단 운용을 위한 종합로드맵 발표 계획

※ 3차원 공중교통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, 연 200여억 원 추산(수도권 기준)

※ 김포공항 → 잠실 이동소요시간: 자가용(73분), 드론택시(12분)

-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 : 2016년 704억원→**2025년 8,272억 원**(예상) (2026년 글로벌 시장 규모 : 7조 7천억 원 전망)

□ 美정부, 글로벌호크 한국판매 5년 만에 승인

- 7월 30일, 한국에 고고도(高高度) 무인정찰기(HUAV) ‘글로벌호크’ 판매 계획 승인 (4대 1조1200억 규모)
- 2014년, 제조사인 노스롭그루먼과 구매계약 후 미 정부 보안강화 정책 등으로 인도 지연되어 옴. 이번 계약은 미 의회 승인 후 확정 될 예정.
- **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운용에 따른 전략적 장점 :**

1. 탐지능력 첨단 레이더(SAR)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으로 지상 30cm 크기 물체 식별
2. 영상정보 독자적 획득 가능(現, 미국에 의존)
3. 고성능 레이더 장착으로 주야간, 악천후 등 전천후 감시 가능

글로벌호크(RQ-4 Block 30 RPA) 제원

-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
- 최대비행고도 20km, 작전반경 3,000km
- 운항속도 : 636km/h, 비행시간 : 42시간
- 최대중량 : 11.6t(연료포함), 탑재중량 : 907kg

□ 대한항공, 500MD 무인헬기 초도비행 성공

- 2014년부터 산업부 기술개발과제 등을 통해 500MD 헬기 무인화 개발 진행
- 2021년 말까지 고객 요구사항 반영 해 추가 개발할 계획
- 7.30.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센터에서 약 30분간 초도비행 완수
- 무인화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 입증으로 방위사업청의 특별 감항인증 획득

500MD 무인헬기(KUS-VH)

- 비행제어컴퓨터, 전술급 통합항법장치, 추진제어기, 전기-기계식 로터 작동기 등 첨단 비행조종시스템 적용
- 주·야간 정찰감시 가능한 임무장치 장착 개발 진행

도내 동향

□ 스마트공장 도입한 케이피항공산업, 제품 불량률 '뚝'

- 케이피항공산업(대표 김종판) 2017년부터 공장 스마트화를 진행,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서류 작업시간 90% 단축, 제품 불량률 7.5% 감축 효과 발표
- 이는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를 가능케 해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이 48% 증가 ('18. 매출액 255억 원)
- 또한, 케이피항공산업은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, 경남TP 등이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 선정돼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

관내 동향

□ ㈜에어로매스터, 한국항공서비스(주)와 MRO계약 체결

- ㈜에어로매스터(대표 서정배)*, 한국항공서비스(주)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 체결

* ㈜에어로 메스터 : 사천 소재, 항공전자장비, 항공기 관련 S/W 개발·제작 및 와이어하네스 전문기업

- 이는 에어로매스터의 항공MRO사업에 대한 진입 선언으로,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항공기MRO품질 인증도 올해 안에 획득할 예정
- 이번 사업체결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Wire Harness 및 Matrix 품목에 대한 항공기 장착사업이며 오는 8월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

□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관내 항공산업 동향

- 관내 소재 56개 항공부품업체 중에서 8개사가 일본과 직·간접적인 거래를 하지만, 업체 모두 B-747 제작 협력사로 OEM에서 부품소재를 사급하고 있어 피해 미미
- 관내 복합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6개사 중 2개사가 일본산 제품 사용 중이나, OEM에서 복합재 소재인 프리프레그(Prepreg)를 사급하고 있어 피해 미미

※ KAI는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여 한국복합소재에 사급하고 있음. KAI가 거래하는 일본업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제외 업체로 수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

- KAI가 개발 중인 KFX에는 일본산 탄소섬유 미적용

작성일	2019. 8. 19.(월)	**보고일**	**2019. 8. 19.(월)**
부서명	**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**	**담당자**	**박예지 (055-831-3470)**